Frédéric Chopin (1810–1849)

- Piano Concerto No. 1 in E minor, Op. 11
  - □□
- Piano Concerto No. 2 in F minor, Op. 21
  - □□

Piano Concerto No. 1 in E minor, Op. 11

정보

개요
곡명: Piano Concerto No. 1 in E minor, Op. 11
작곡가: Frédéric Chopin (1810–1849)
장르: 피아노 협주곡
작곡: 1830년 완성. POLMIC과 국가판 자료는 4–8월 작업으로, Boston Symphony Orchestra는 가을 완성으로 요약한다.
초연: 1830년 10월 11일 Warsaw National Theatre, Chopin 독주, Carlo Evasio Soliva 지휘
헌정: Friedrich Kalkbrenner
범위: 자필 총보가 전하지 않는 작품의 원전과 실연 버전을 구분하고, 통상 오케스트라판의 세 악장과 주요
초기 ·현대 연주를 설명한다.
IMSLP:

https://imslp.org/wiki/Piano_Concerto_No.1%2C_Op.11_(Chopin%2C_Fr%C3%A9d%C3%A9ric)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Piano_Concerto_No.1(Chopin)

Frédéric Chopin의 Piano Concerto No. 1 in E minor, Op. 11은 독주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세 악장 협주곡이다 . I. Allegro maestoso, II. Romance. Larghetto, III. Rondo. Vivace가 차례로 이어지며, E minor 에서 시작해 마지막 E major에 도달한다. 1830년 10월 11일 Warsaw National Theatre에서 Chopin이 독주자로 처음 공개했고, 작품번호 1번은 작곡 순서가 아니라 출판 순서에서 생겼다. 현재 자필 총보와 당시
독주 파트가 현존하지 않으므로, 초판과 필사 파트, 국가판이 제시하는 서로 다른 실연 형태를 함께 살피면
작품의 전승과 연주 조건을 파악할 수 있다.

출판 정보와 자료

F minor 협주곡 Op. 21이 먼저 쓰였고 E minor 협주곡 Op. 11이 뒤에 완성되었다 . Op. 11은 1833년에 먼저 인쇄되고 Op. 21은 1836년에 출판되면서 현재의 번호가 정착했다. 1830년 5월 15일 Titus Woyciechowski 에게 보낸 편지에서 Chopin은 E major의 느린 악장을 차분하고 낭만적인 봄밤의 음악으로 구상했다고
설명했다. 이 편지는 Romance의 정서적 방향을 보여 주는 직접 자료다.

자필 총보와 1830년 Warsaw 공연에서 사용한 자필 독주 파트는 현존하지 않는다. 대신 1830년 공연에
가까운 필사 오케스트라 파트, 출판용 원고, 1833년 초판이 서로 다른 증거를 제공한다. 1832–33년 출판 준비에서는 관악 성부와 비올라 ·더블베이스가 보강되었고 , 일부 수정의 주체는 문헌으로 특정되지 않는다. Ignacy Feliks Dobrzyński나 Tomasz Nidecki가 관현악 작업을 도왔다는 설명은 가능성으로 전해지며, 확정된 공동 오케스트레이터의 기록은 없다.

첫 프랑스판은 M. Schlesinger가 Paris에서 1833년 (M.S.1409)에 출판했고, 같은 해 F. Kistner가 Leipzig에서 1020–1022로 냈다. Wessel & Co.의 London판은 1834년 1086으로 이어졌다. Chopin National Edition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19세기 출판 상태를 재현하는 역사적 총보와, 여러 직접·간접 자료를 대조해 연주용으로 정리한 콘서트 총보를 구분한다. 두 총보는 서로 다른 편집 목적을 보여 주며, 각 판본은 대상 시기와 실연 목적에 맞는 기준을 제공한다.

소요 시간

통상 오케스트라판은 약 35–40분이다. PTNA 작품 백과는 43분 30초를 제시하고, Martha Argerich·Claudio Abbado·London Symphony Orchestra의 1968년 녹음은 약 38분 04초, Artur Rubinstein·Alfred Wallenstein·Los Angeles Philharmonic의 1953년 녹음은 약 38분 29초다. 템포·반복·카덴차·편집판에 따라 이 범위 안팎의 시간이 나타난다.

악장별 참고값은 I. Allegro maestoso 19–21분, II. Romance. Larghetto 9–11분, III. Rondo. Vivace 9–10분이다. PTNA의 수치는 각 악장을 21분 30초, 11분 30초, 10분 30초로 잡은 긴 표본이며, 녹음의 트랙 시간과 차이가 난다.

편성

독주 피아노, 플루트 2,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호른 4, 트럼펫 2, 트롬본 1(통상 테너), 팀파니, 제1·2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로 편성된다. LA Philharmonic과 Chopin Foundation이 이 통상 편성을 제시한다. 1832–33년 출판 과정에서 관악 성부와 저현이 보강되었으므로, 초연 당시의 정확한 인원은 현재 총보에 적힌 악기 수와 별도로 다뤄진다.

Chopin 생전에는 관현악판과 함께 한 대 피아노판, 두 대 피아노판, 현악 사중주·오중주 반주판이 연주되었다. 국가판은 이 네 형식을 각각 문헌적 실연 버전으로 정리한다. 현악 편성은 19세기 실내 연주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된 방식으로 이해된다.

악장 구성

악장	조성·박자	공식 표기와 형식	참고 시간
I. Allegro maestoso	E minor, 3/4	협주곡형 소나타를 확장한 넓은 3부 구조. 관현악 도입, 독주 피아노의 재제시와 장식, 중간부, 재현부와 코다로 이어진다.	19–21분
II. Romance. Larghetto	E major, 4/4	12마디 현악 도입 뒤 피아노가 노래하는 로망스. 대조부와 장식된 귀환이 이어진다.	9–11분
III. Rondo. Vivace	E major, 2/4	C-sharp minor의 짧은 도입 뒤 krakowiak 리듬의 론도 주제와 에피소드, 카덴차, 코다가 전개된다.	9–10분

I. Allegro maestoso E minor . . PTNA Indianapolis Symphony E major G major . , .

II. Romance. Larghetto E major, 4/4 . 12 . Chopin , Romance , .

III. Rondo. Vivace C-sharp minor E major . krakowiak , E major .

, ,

E minor , Romance , Rondo . 1 .

National Edition . , , . .

,

1830 10 11 Warsaw National Theatre Chopin , NIFC Boston Symphony Orchestra . 11 2 Warsaw . 1831 6 11 Kärtnerthortheater Vienna , 1832 Paris . 1832 5 20 1 , .

, . National Edition , , .

,

Martha Argerich, Claudio Abbado, London Symphony Orchestra(1968; Deutsche Grammophon 리마스터)는 I 18분 54초, II 10분 03초, III 9분 07초로 약 38분 04초에 이르는 연주다. 빠른 독주 패시지와 명료한 관현악의 대비가 20세기 후반 녹음 전통을 보여 준다. Artur Rubinstein, Alfred Wallenstein, Los Angeles Philharmonic(1953-12-12; Naxos Historical 2008)은 두 Chopin 협주곡을 함께 담은 역사적 음반이다. 카탈로그는 E minor 협주곡의 판본명을 특정하지 않는다.
Dang Thai Son, Frans Brüggen, Orchestra of the Eighteenth Century(2005-09-08; NIFC NIFCCD004, 2006)는 시대악기 오케스트라와 Chopin 전문 피아니스트의 결합을 들려준다.
시대악기라는 편성 표지는 1830년의 악기 구성을 확정하는 표지와 구분된다.

이 녹음들은 같은 작품이 독주 중심의 현대 오케스트라 , 역사적 연주 전통, 시대악기 편성에서 서로 다른 균형으로 실현되는 사례를 제공한다.

주요 자료

Chopin/NIFC: Biography
Chopin/NIFC: Alphabetical work list
Chopin National Edition: performance commentaries
Chopin National Edition: source commentaries
Chopin National Edition: historical score
Chopin official: first editions
POLMIC: Op. 11과 Op. 21 자료
Boston Symphony Orchestra: Piano Concerto No. 1 LA Philharmonic: Piano Concerto No. 1 Indianapolis Symphony: Chopin Concerto No. 1 Philharmonie de Paris: Chopin concerto 자료 Chopin Foundation: Chopin concertos
NIFC: Dang Thai Son·Brüggen 음반
Deutsche Grammophon: Argerich·Abbado 음반 Naxos Historical: Rubinstein·Wallenstein 음반

Piano Concerto No. 2 in F minor, Op. 21

정보

Frédéric Chopin, *Piano Concerto No. 2 in F minor*, Op. 21

개요

항목	내용
작곡가	Frédéric Chopin (1810–1849)
작품명	*Piano Concerto No. 2 in F minor*, Op. 21
작곡	1829년 가을 ~1830년 초
공개 초연	1830년 3월 17일 , 바르샤바 국립극장 , 쇼팽 피아노 독주
구성	I. Maestoso · II. Larghetto · III. Allegro vivace
초판	1836년 라이프치히 ·파리 ·런던에서 각각 출판
헌정	델피나 포토츠카 백작부인 (Countess Delfina Potocka)
IMSLP	작품 악보와 서지
Wikipedia	Piano Concerto No. 2 (Chopin)

Frédéric Chopin의 *Piano Concerto No. 2 in F minor*, Op. 21은 독주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세 악장 협주곡이다 . 이 글은 1830년 바르샤바에서 공개 초연된 관현악 동반 전곡을 다룬다 . 악장은 I. Maestoso, II. Larghetto, III. Allegro vivace의 순서로 이어진다 . 쇼팽은 이 F단조 작품을 E단조 협주곡보다 먼저 작곡했지만 , E단조 작품이 먼저 출판되면서 실제 작곡 순서와 통용 번호가 뒤바뀌었다 .

출판 정보와 자료

1829 10 3 ‘ ’ 1830 3 17 2 3 22 1829

1835 8 11

1836 3 8 2024 2025

3035 1315 8~10

IMSLP piano solo; 2 flutes, 2 oboes, 2 clarinets, 2 bassoons; 2 horns, 2 trumpets, 1 trombone; timpani; strings

당대의 ‘화려한 양식 ’ 협주곡을 후기 낭만주의의 교향적 협주곡과 같은 기준으로 재면, 관현악이 가볍다는 평가만 남기 쉽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피아노가 중심을 차지하는 것 자체가 양식의 출발점이다 . 그 중심을 어떻게 소개하고, 중단시키며 , 다시 춤추게 하는지가 관현악의 일이다. 쇼팽 연구자 짐 샘슨도 당시 협주곡이 전관현악뿐 아니라 현악 소편성과 살롱의 여러 조건에서 연주되었다는 점을 들어, 관현악을 오직 후기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라고 환기한다.

세 악장의 음악

I. Maestoso: 관현악의 주제가 피아노의 말로 바뀔 때

F단조의 첫 악장은 관현악이 긴 서주에서 주요 선율을 먼저 들려주는 협주곡 관례를 따른다. 단단한
점리듬으로 시작하는 중심 주제는 노래하듯 흐르다가도 행진곡 같은 기세를 드러낸다. 이에 맞서는 A♭장조의 선율은 훨씬 부드럽고 성악적이다 . 관현악의 오보에가 그 선율의 윤곽을 알리지만, 주제가 충분히 숨을 쉬는 때는 피아노가 등장한 뒤다. 단순히 서주를 더 큰 소리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독주 악기가 관현악의 구상을 자신의 음역과 장식, 긴 호흡에 맞게 다시 빚는 것이다.

이 악장을 따라갈 때는 빠른 음형만 좇기보다 주제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는지 듣는 편이 좋다. 피아노가
장식적인 음의 흐름을 펼치는 동안 관현악은 앞서 들린 리듬이나 선율 조각을 붙들고 있고, 그 조각들이 긴장이 고조되는 부분을 지나 재현부의 귀환을 준비한다. 독주가 마음껏 유려해질수록 관현악의 응답은 그 음악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상기시킨다 . 이 균형 덕분에 첫 악장은 독주자의 기교 전시로만 흩어지지 않는다.

‘마에스토소 ’라는 지시는 전체를 한 가지 장중한 속도로 밀어붙이라는 뜻으로 읽기 어렵다. 춤에 가까운 첫 주제의 걸음과 두 번째 주제의 노래가 서로 다른 무게를 지닌다. 쇼팽 내셔널 에디션의 연주 주석은 초기
작품에서 짧은 이음줄이 한 악구 전체를 덮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이음줄의 끝마다 손을 떼어 선율을 끊기보다, 시작음을 부드럽게 눌러 주면서 더 긴 문장의 연결을 살리라는 편집자의 조언이다. 악보의 작은 기호 하나가 피아노가 ‘말하는 ’ 방식에 관여하는 셈이다.

II. Larghetto: 노래와 레치타티보 사이

A♭장조의 느린 악장은 관현악이 조용히 공간을 마련한 뒤 피아노가 길게 노래하며 시작한다. 주선율은
되돌아올 때마다 같은 음형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는다. 쇼팽은 음 사이를 더 잘게 나누고 장식을 늘려, 처음의 단순한 노래가 점차 섬세한 선율의 물결이 되도록 했다. 이 악장을 야상곡에 비유하는 이유는 잔잔한 분위기 때문만이 아니라, 일정한 반주 위에서 선율이 자유로운 숨을 얻기 때문이다.

가운데 부분에서는 그 숨이 갑자기 달라진다. 현악기의 떨리는 음향 위로 피아노가 또렷한 말처럼, 때로는
격앙된 목소리처럼 이어지는 레치타티보를 펼친다. 여기서 관현악은 배경을 희미하게 칠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지속적인 떨림이 노래와 말 사이에 놓인 긴장을 유지하기 때문에, 피아노가 다시 고요한 주선율로
돌아오는 순간도 한층 분명해진다 . 사랑의 사연을 안다면 그 대비를 한 사람의 감정 변화처럼 들을 수 있지만, 편지의 단 한 문장으로 악장의 형식과 표현을 모두 환원할 필요는 없다.

이 대목에는 연주 매체에 관한 귀중한 흔적도 남았다. 쇼팽은 제자 제인 스털링의 인쇄 악보에 관현악 없이 연주할 때 쓸 수 있도록, 45~72마디 레치타티보의 화성 반주를 피아노에 덧붙였다. 관현악과 함께 공연된 협주곡이 한 대의 피아노로도 살아갈 수 있던 19세기의 실제 연주 환경을 보여 준다. 그렇다고 독주판이
관현악판을 대체하는 ‘진본 ’이라는 뜻은 아니다. 같은 음악의 핵심 선율이 서로 다른 방에서 어떤 도움을 받아 노래했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다.

III. Allegro vivace: F단조의 춤에서 F장조의 결말로

마지막 악장은 다시 F단조로 출발한다. 주제가 되돌아오는 론도의 움직임에 쿠야비아크를 비롯한 폴란드 춤의 굽이와 악센트가 배어 있다. 피아노의 경쾌한 선율은 마치 가볍게 발을 내딛는 듯하지만, 중간의
에피소드에서는 당김음과 강한 몸짓이 춤의 표정을 바꾼다. 곡이 똑같은 흥겨움을 이어가기보다 한 무리의
춤이 다른 춤에 자리를 내주듯 움직이므로 , 되돌아온 주제도 처음과 다르게 들린다.

특히 현악기가 활털 대신 활대로 줄을 치는 col legno, 줄을 튕기는 피치카토, 저음의 빈 5도는 독주 피아노의 반짝임과 다른 질감을 낸다. 이를 익살스러운 특수효과 하나로 지나치면 피날레의 리듬을 놓치기 쉽다. 현악의 마른 소리가 춤의 박을 새롭게 드러낸 뒤, 관악기의 신호가 마지막 전환을 알린다. 남은 자료에는 이 신호를 가리키는 cor de signal이라는 표기가 있다. 내셔널 에디션의 편집진은 쇼팽이 일반 호른과 다른 F조 우편나팔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현대 연주에서는 복제 악기나 코넷 ·플뤼겔호른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 초연에서 어느 악기를 썼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원자료를 해석한 제안이다. 곡은 F단조의 정서를 그대로 굳히지 않고 F장조로 나아가며 끝난다. 협주곡
전체에서 독주 피아노가 얻은 자유가 마지막에는 관현악과 같은 방향의 활력으로 모인다.

연주와 판본을 함께 듣기

쇼팽 생전의 협주곡은 오늘날의 ‘독주자와 대규모 오케스트라 ’라는 한 형태로만 존재하지 않았다. 한 대 피아노의 인쇄 악보에는 합주 대목을 작은 음표로 옮겨 놓았고, 집과 교습 현장에서는 두 대 피아노를 쓰기도 했다. 현악 사중주 또는 오중주를 곁들인 연주도 가능했다. 그러나 쇼팽 내셔널 에디션은 관현악 동반 형식을 이 곡의 기본 구상으로 본다. 여러 매체의 전승은 그 구상을 지워 버리는 변형이 아니라, 협주곡이 놓였던 실제 장소와 악기 조건의 기록이다.

오늘날 연주자는 피아노가 관현악을 강하게 이끌지, 서로의 호흡을 가까이 붙일지부터 선택해야 한다. 크리스티안 치머만은 두 협주곡을 확장된 실내악처럼 생각하며 자신의 오케스트라와 연주 ·지휘를 함께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의 선택이 유일한 모범이라는 뜻은 아니다. 당시 공연 비평에서는 그 접근이 첫 악장
관현악의 박을 지나치게 느슨하게 하고 독주와 합주의 경계를 흐린다는 반론도 나왔다. 작품이 요구하는
친밀함과 큰 무대의 추진력이 언제나 쉽게 화해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다.

판본에 따라서도 들어야 할 지점이 달라진다. 초판의 이음줄을 그대로 읽는 연주와 반자필 자료까지 대조한
연주는 피아노 악구의 끊김과 연결을 다르게 처리할 수 있다. 관현악 파트 역시 후대의 익숙한 증보를 따를지, 초기 자료의 음색을 되찾으려 할지 선택해야 한다. 그러므로 녹음 한 장을 ‘원래 쇼팽의 소리 ’로 단정하기보다 , 첫 악장 서주의 농도, 둘째 악장 레치타티보에서 피아노와 현악이 만드는 거리, 피날레 활대 연주의 마른
리듬을 비교해 듣는 편이 이 작품을 더 잘 드러낸다.

주요 자료

쇼팽 내셔널 에디션, 피아노 협주곡 F단조의 연주 ·출처 주석: 연주 매체, 현존 반자필, 초판별 출판
내역, 이음줄과 제자 악보의 자필 수정.

쇼팽 내셔널 에디션, 역사적 총보 해설: 연구용 역사적 총보의 목적과 피날레 신호 악기에 관한
편집자의 판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9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